

Ⅱ. 원불교 봉공회의 활성화 방안¹⁾

김덕수 위원*

(수위단회 사업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서론.....	57
2. 원불교 봉공회의 활성화 방안.....	58
3. 결론.....	64

1. 서론

「원불교 봉공회의 활성화 방안」이란 제목은 과거 창립 선진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봉공활동의 전통을 이어 받음과 동시에 급격히 변화하고 다양하게 분화해가는 현대 사회의 사회복지적 요구에 걸맞게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조직활동의 비전제시와 역할을 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는 것이며, 지금보다 더 나은 봉공회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이 들어 있다.

원불교 정신의 실천 강령은 4대 강령, 그 중의 요체는 무아봉공이다. 그 동안 봉공회는 각 교당과 교구에서 봉공회원들의 무아봉공의 정신에 입각한 봉공사업으로 많은 일들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위에서 밝힌 것처럼 시대와 환경과 여건이 바뀌면서 ‘봉공정신’은 많이 퇴색되어 가고 또한 봉공회도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1) 봉공회를 부르는 명칭은 교헌에서 밝힌 「봉공회 규정」에 원불교 00교구 봉공회, 원불교 00교당 봉공회로 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전체적인 윤곽을 의미하는 뜻에서 원불교 봉공회라 칭한다.

* 김덕수 위원 : 원기 86~88년까지 수위단회 사업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서울교구 원봉공회에서 근무하고 있다.

봉공회의 위상정립이라는 과제를 안게 되고, 현실에 발맞추어 봉공회의 활성화 방안을 논하게 되었다.

그러나 봉공회의 활성화 방안은 지금 현재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교구 봉공회에서는 원기83년(1998년)부터 계속 과제로 안고 ‘서울교구 봉공회 창립 20주년 기념세미나’²⁾를 가지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서울교구 봉공회의 20주년 기념세미나이지만 서울교구 봉공회가 전국의 봉공회를 선도해 가는 입장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원기85년 ‘전국 봉공 회장단 훈련’³⁾에서 더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그 동안 논의되었던 봉공회 활성화 방안을 다시 정리해 보면서 2~5년 동안 계속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였지만, 잘 되지 못했던 이유를 정리해보고 그 해결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글은 학문적으로 논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봉공회의 활성화방안을 중점으로 쓰여질 것이다.

II. 원불교 봉공회의 활성화 방안

1. 「서울교구 봉공회 창립 20주년 기념세미나」에서 논의된 방안(원기83년)

김일상 교무(현 교화훈련부장)는 ‘서울교구 봉공회 20년 활동’이란 제목하에 서울교구 봉공회를 태동기, 성장기, 발전기, 비약기 등 네 단계로 나누면서 서울교구 봉공회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 동안의 사업을 분석하며 직접적인 공헌(교단에 미친 영향과 교구에 미친 영향, 기관에 미친 영향)과 간접적인 공헌을 열거하면서 아쉬운 점들을 밝혔다.

2) 발표자 및 발표내용

- 교법정신과 봉공회(박용덕 교무)
- 서울교구 봉공회 20년 활동(김일상 교무)
- 서울교구 봉공회 현황 분석과 진단(당시 신촌교당의 정성길교무)
- 한국 사회복지의 환경변화와 원불교 봉공회의 활동방향(원석조 교수)

3) 워크숍 주제 및 강사

- NGO활동과 봉공회(김병삼 교도)
- 원불교 봉공회의 사회복지활동 방향성(김경 교수)
- 생협운동(곽진영 원무)
- 교당 봉공회의 조직강화 방안(성시중 교무)
- 미래사회의 대안 자원봉사(이성록 방앗골 복지관장)

첫째, 장·단기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며, 둘째는 자체 시설기관이 없다는 점, 셋째, 생산성이 있는 사업이 뚜렷하지 않고, 넷째, 재정적 측면에서 호교성향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이 말은 교단 조직의 하나로 마땅한 일이지만 봉공회의 성격에서 보면 지양되어야 할 분야이며, 이것으로 인해 서울교구 봉공회의 발전이 지체된 바 있음을 열거하였다. 그 이유로 서울교구가 단일교구에서 세 개의 교구로 나뉘었다가 다시 합해진 점이며, 여성회의 출현으로 봉공회의 이미지가 약화된 점, 그리고 중앙봉공회의 역할이 거의 없었던 점을 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자체조직을 정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봉공회와 뜻을 같이하려는 회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봉공회원을 확보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오늘날까지 결국 이루지 못하고 있다. 각 교구 봉공회는 교단의 조직법에 의하여 정회원 즉, 각 교당 봉공회의 회장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여 왔다. 이 문제는 교당봉공회장의 능력 여하에 따라 개 교당 봉공회의 발전의 성쇠가 달려 있으므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며, 중요한 문제인 만큼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뒤에 다시 언급하겠다.

아울러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으로는 인류 미래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환경과 생명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앞장서 펴야 할 것이며, 이에 준하여 도시와 농촌을 연계시키는 사업을 펴 양자를 살리는 운동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지원사업을 줄여 자체 시설기관과 생산성 있는 사업체를 가져야 하며, 문화사업에 눈을 돌려 적극적인 홍보체제를 갖추어 원불교 창교 목적에 부합되는 정신개벽을 위한 사업을 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정성길 교도는 ‘현 단계 활동진단과 대안모색’에서 의식면으로는 봉공사업을 자선 단계에 머물고 있는 관행을 벗어나 봉공을 현대의 복지개념인 개인과 사회를 통합적으로 보고 궁극적으로 인간존중을 실현하는 즉, 진정한 봉공은 무지, 빈곤, 질병, 불평등 사회문제 제반을 개인의 잘못이나 업으로만 돌리지 않고 사회전체의 유기적 관계에서 파악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신, 육신, 물질, 제도적으로 돕는 체계적·지속적 활동으로 보는 안목을 가지며, 조직면으로는 교구봉공회가 임원을 중심으로 하되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안배되어 보다 전문화가 되고 체계화되어 교당 봉공활동을 지원하고 기존 봉공활동들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며 지역의 지역센터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활동면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램 개발을 요구하였다.

위의 내용들을 파악한 서울교구 봉공회에서는 지적된 문제점들과 활성화 방안을 다시 짚어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세우고, 각 교구의 봉공회 현황도 이와 비슷하리라 짐작하면서 전국 봉공회장단 훈련에서도 이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2. 「전국 봉공회장단 훈련」에서 논의된 봉공회 발전 방안(원기85년)

서울교구 봉공회의 세미나 자료를 참고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 연마한 서울봉공회 회장단들은 원기85년 전국 봉공회장단 훈련에서 이 문제들을 다시 워크 주제로 선택하였다. 특히 사회복지를 전공한 당시의 기획실장(추산 성시종)으로부터 ‘교당 봉공회의 조직강화 방안’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 전국의 각 교당 봉공회장들은 봉공회가 교단적 경륜으로 발족되었고, 교단 창립의 과정이 봉공의 역사가 되는 이유를 들으면서 숙연해 하였고, 봉공이 교화에 미치는 영향을 들으면서 다시금 봉공활동의 중요성을 공감했다.

또한, 봉공회의 성격이해 측면에서 봉공회는 교단법에 의한 제도적 단체이며, 중앙·교구·교당을 연계한 체계적 단체이며, 교도단체이면서 비교도에게 참여를 개방하는 단체이며 기금마련을 위한 활동의 보장을 받는 단체라는 설명에 힘을 얻는 것 같았다.

아울러 봉공회 조직강화 방안으로 교당 봉공회의 실질적 재조직화 추진, 중앙 봉공회의 역할 강화, 재가중심의 자치활동 보장, 지역단위의 연합활동 모색, 교당별 지역 특성에 맞는 봉공프로그램 개발, 봉공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고유목적에의 사용, 교구별 법인화에 의한 봉공회의 사회화, 교정정책 부서의 역할 강화, 봉공전문 재가 인재확보 및 양성을 들었다.

김병삼 교도는 ‘NGO활동과 봉공회’라는 제목에서 시민단체로서의 봉공회의 역할을 조명해 보고, ‘봉공회 활성화 방안’이란 소제목에서 마케팅 개념 도입, 봉공회의 NGO 활동에 자원봉사자 활용, 조직의 재정비,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활용, 남자교도의 참여확대, 정부지원시민단체 프로그램 참가 등을 들었다.

3. 원불교 봉공회의 활성화 방안 제안

① 위상정립

원기 85년도 전국봉공회장단 훈련시 있었던 워크샵에서 ‘교당 봉공회 조직강화 방안’이란 주제에 참석한 봉공회원들의 환희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봉공’이라는 개념이 쇠퇴해져 가고 ‘봉공회’조직이 타 조직에 비교되어 위상이 떨어진다는 부담을 가지고 그것을 고민하는 봉공회원들의 만남이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그러므로 봉공회원들의 봉공정신이 되살아 날 수 있는 봉공회의 위상정립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위상정립이란 뜻을 크게 볼 것이 아니라 앞에서 밝힌 바 있는 봉공회의 역사, 교단에서의 비중, 봉공회의 성격 등등을 교단적 차원에서 다시 새겨야 할 것이며, 봉공회장들의 노고도 보상되어야 할 것이다. 소소한 예를 든다면 교당에서 교당요인을 사령할 때 당해 교구 교구장의 명의로 사령이 되지만 단체장들은 당해 교당 교무 명의로 사령이 된다. 이런 소소한 예들이 마음의 상처가 되고 의욕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 더불어 전국의 봉공회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단의 조치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② 조직정비 및 회원관리

- 조직정비

교구는 교당회장단이 그 회원이 되고 중앙은 또 다시 교구 회장단이 회원이 됨으로써 중층적 구조를 띠고 있다. 이 구조는 교당이 교구의 회원이 되고 교구가 다시 중앙의 회원이 되는 구조와 비교해 볼 때 엄밀한 차이가 있다. 전자는 의사결정이 상의하달에 용이하여 대표의 역량에 많이 의존해 있고, 반면 후자는 하의상달에 용이하고 조직의 힘을 싣는 민주적 구조이다. 그러므로 개개인의 봉공회원이 함께 힘을 모으고 회원이라는 소속감이 들 수 있는 조직으로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 회원관리

봉공회원으로 회원이 등록된다면 교당 봉공회원은 교당 봉공회장을 중심으로 결속이 되고, 교구에서는 교구 전 봉공회원들을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교구의 경우 원기83년부터 시도가 있었으나, 많은 교무들의 반대로 회원등록이 불가하였다.

월1회 있어지는 월례회 역시 봉공회장단 중심으로 있어지다보니 차츰 교당 봉공 회원들과 거리가 멀어지고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개 교당 봉공회장의 역량에 따라 소식전달 및 모든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다. 회원등록이 이루어지면 교구에서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며, 특히 남자봉공회원들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의사교환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③ 교육(조직학습)

- 교구봉공회의 조직학습

각 교구 봉공회 임원들은 사회복지를 전공한 전문직은 아니지만 종교가에서 필요한 신심, 공심, 공부심 등이 남다르고 교단의 발전에 초석이 되려는 의지가 강한 분들이며, 무아봉공의 정신으로 봉공사업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나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여건들을 시행하려면 많은 교육이 필수적이므로 교구 봉공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임원들의 교육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첫째는 교구임원들의 회의시에 교육(학습)을 시키는 것이다. 서울교구의 경우 임원들의 모임은 그 동안 계속 회의를 통해 안전을 다루어 왔다. 앞으로는 지식경영 차원에서 리더의 역할과 사회변화에 걸맞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각 교구에 소속된 교당 봉공회장들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이 일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다. 대체적으로 각 교구의 월례회는 정회원 즉, 각 교당 봉공회장들을 상대로 회의를 해 왔다. 월례회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들을 각 교당에 정확한 전달이 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 일은 봉공회장이 역임될 때 우선적으로 보아야 하는 여러 가지 역량들보다는 대체적으로 신심, 공심이 투철하고 연륜이 높은 교도가 봉공회장이 되고 보니 리더의 역할 문제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교구 밖의 재량이므로 역임된 회장들을 잘 교육시킬 의무가 교구에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월1회 있어지는 봉공월례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있어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이나 리더십 등을 포함한 심도 깊은 교육으로 각 교당 봉공회장이 자신이 맡은 교당의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전국의 조직학습

전국적인 모임은 1년에 두 번 ‘전국봉공회총회’와 ‘전국봉공회장단훈련’이 있다. 회원 모두가 주부들이라 많은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관계로 1박2일의 훈련을 가져왔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전국의 봉공회장들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첫째, 전국봉공회 총회시 각 교구 봉공회장들에게 개인역량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둘째, 전국봉공회장단훈련은 전국을 함께 묶는 의미로 예정대로 실행한다. 단 프로그램은 역량개발 및 친목도모에 초점을 둔다.

셋째, 13개 교구를 한 달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학습을 시키는 것이다. 이제까지 각 교구에서도 나름대로 월1회 월례회 모임을 가지고 있었지만, 중앙차원에서 각 교구마다 년1회씩 주관을 해 주는 것이다. 거기에는 봉공회 임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전 회원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전국적인 훈련으로 월1회씩 돌아간다면 회장단들뿐만 아니라 회원들에게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또 전국적인 열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대감이 생기면서 봉공회원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④ 전문가 양성

어느 단체에서나 전문가가 필요하다. 특히 봉공회는 봉공회원 즉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이고 보니, 모든 면에서 전문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는 전무한 실정이다.

교구봉공회에서는 봉공에 애정을 가진 재가 인재를 확보하여 교육시켜 전문인으로 양성해야 할 것이며, 교구봉공회를 전담하는 교무가 필요하고, 교무 역시 전문인으로 재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중앙봉공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앙봉공회의 입지를 세워야 되며, 여기에는 현재 법인화되어 있는 원 봉공회와 연계하여 교단내외를 함께 아우르는 사업구상과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다각적인 도움의 형식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당, 교구 중앙은 봉공회에 애정을 가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⑤ 교무들의 인식재고

교당 봉공회에서 그 교당 교무의 관심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도교무는 회원의 입회, 봉공활동의 선택, 재정지출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봉공이란 정각(正覺)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고, 은혜를 절실히 느끼지 않으면 할 수 없고, 불법을 생활속에 실천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다. 봉공은 작은 나를 떠나 일을 하나 그 중에서 지혜가 생하고 복이 쌓인다. 결국 성불제중을 하는 것이다. 교단으로 볼 때는 교법을 실천하는 길이 된다. 교단이 급성장 할 때를 보면 봉공의 의지가 사회에 실천될 때였다. 봉공을 하면 가정도 살아나고 교단도 활력이 된다.

그러나 현실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단체들간에 대립이 생겨지고 봉공회원들의 자부심은 하락하고, 봉공도 의무 차원의 봉사활동으로 나투어질 때가 많다. 왜 교당 봉공회가 활성화되지 않는가? 봉공을 해보지 않아 재미를 모르거나 진정한 봉공의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공부를 통해 보은실행을 해야겠다는 자각이 일어나야 한다. 그 일은 그 교당의 교무가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급한 사항은 먼저 교무들이 봉공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도들과의 관계는 교당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원불교인이 아닌 사회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것은 봉공프로그램이 제일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교무들의 교육이 중요한데 이는 교무훈련때 적절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무들에게 인식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들을 할 때 교무들이 직접 뛰어들어 함께 일을 할 때 교도들의 눈에 비친 교무는 얼마나 “멋진 우리 교무님”이 될 것인가. 일을 하다보면 자신의 동네 사정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맞춤 프로그램이 구상될 수 있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전국이 함께 공유할 때 교화도 함께 활력을 얻을 것이라 본다.

III. 결 론

교화·교육·자선은 서로 연관되어 불가불리분의 관계에 있다. 교육계·자선계에 있는 교역자 역시 각기 맡은 직장에서 교화를 염두에 두고 활동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교당에서 교역에 임하고 있는 교무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봉공활동이 교화와 큰 관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일은 예비교역자 시절에 교화라는 방향이 다채롭게 정립되어 교역에 임했어야 하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화개념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았다. 본인의 경우만 보아도 교당에서 재임할 때 봉공이란 개념을 크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봉공회 자체도 교당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었다. 아마 모든 교무들의 경우도 그러하리라고 생각한다.

원불교에서 교무의 비중은 아주 크다 할 것이다. 교무들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 하나에 교도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또한 모든 단체들도 아직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행보는 어렵고 교무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안할 때 앞에서 밝힌 발전 방안의 밑바탕에는 교무들의 ‘봉공개념에 대한 의식구조 변화’가 전제되어야 함을 깔고 있다.

그러므로 예비교역자 시절에 봉공·복지 등 현실에서 필요로 하는 이러한 교육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제언하며, 모든 교무들도 봉공의 개념을 새롭게 가질 수 있도록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는 봉공회 차원을 떠나서 종교인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며, 소태산 대종사께서 밝히신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인도하는 밑거름이 되며, 현실의 복지사회 구현에 필요한 원불교인의 의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단에서는 「교단 제3대 설계지침」의 사회봉공분과에서 봉공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앞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니 그 내용은 이렇다.

“봉공·공익분과는 분과회의(3회), 공익부에서 마련한 의견안, 자선 기관장 협의 모임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그동안 모아진 봉공 공익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들은

- 교단의 자선 봉공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타 분야에 비하여 발전이 적었다.
- 교화 침체 원인이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봉공 교화의 부족이 크므로 봉공의 내용이 있는 교화와 사업이 되어야 한다.
- 청년·대학생 등 젊은 교도들이 교단의 사회인식에 대한 둔감성을 우려하고 있다.
- 어렵고 소외된 자들이 있는 곳이 설교장이 되는 봉공 교화의 시대를 열어 교단 발전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

